

# 교육, 진리로 하나되는 길

지난 1월, ACSI KOREA 주관 하에 '가르침과 배움의 현장에서 기독교적으로 생각하기'라는 주제로 기독교사 컨퍼런스가 열렸다. 크리스천 오버만(Dr. Christian Overman)과의 대화로 진행된 기독교 세계관 통합교육 컨퍼런스에서 ACSI 사무총장인 이상수 목사가 그를 만났다.

☞ 인터뷰어 이상수(ACSI 사무총장), 사진 신효영

## 이상수(이하 이) : 한국 방문 이유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의 초청으로 한국에 왔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육대학원, 기독교학교 국제연맹(ACSI Korea), 이랜드 직장사역연구소 등에서 강의를 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육대학원과 기독교학교 국제연맹 세미나에서는 "대화로 이어가는 기독교통합교육"이라는 주제로, 교사들이 교과 수업을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그리고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 일상 가운데 성경적 세계관과 통합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도구들에 대해 함께 나누었다. 이랜드 직장사역연구소와 함께한 세미나에서는 어떻게 성경적 세계관과 일상의 삶을 연결하고,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관해 강의했다.

## 이 : 교장 선생님이 재직하다가 2000년도에 "Worldview Matters"라는 기관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Worldview Matters"에 대해 소개하면?

미국에는 많은 기독교 학교와 기독교대학이 있다. 미국이 세계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놀랍게도 소수의 기독교대학에서만 기독교사들에게 교과목과 성경적 세계관을 통합하여 가르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 기독교 교육의 현실이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독교사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독립 비영리단체 "Worldview Matters"를 시작하게 되었다. 기독교 학교들이 잃어버린 성경적 기초를 회복하고, 성경에 기초한 교육과정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기독교사와 학생, 학부모, 목회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Worldview Matters"는 학문적 영역에서의 성경적 세계관 통합을 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과 학교, 직장 가운데서 성경적 세계관과 통합된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 이 : 저서인 <진리와 하나된 교육>(Making the connections)이 한국의 많은 기독교 교사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집필 동기는?

<진리와 하나된 교육>은 소위 "큰 그림(Big Picture)"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특정 수업에서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한 안내서로, 삶에서 경제학, 수학, 역사, 과학, 체육 등을 성경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도록 설계하였다. 시애틀의 캐스캐이드 기독교 학교 교사들과 함께 개발하였는데, 처음에는 다양한 형태로 수업을 디자인했다가 결국 하나의 형태로 통합되었으며, 총 8단계로 구성하였다. 세세하게 다루고는 있지만 매일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실 그렇게 하면 쉽게 지치게 된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일 년에 두 차례 폭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교사들과 함께 기본적인 원리를 학습하고, 서로 나누는 것을 교실에서 적용함으로써 수정, 보완하였다.



크리스천 오버만(Dr. Christian Overman)



이 : <진리와 하나님 교육>을 집필하기 전 “Think again”이라는 세미나를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Think again”에 대해 소개하면?

“Think again”은 하루 6시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 대학생, 목사 등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기독교만이 유일한가? 기독교 세계관이 여타의 세계관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등 일상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세미나이다.

“Think again”를 개발한 이유는 모든 부모가 교사의 위치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부모들도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이 필요했다. “Think again”은 <우리 삶 속에 숨겨진 가정들>(Assumptions)이라는 책에 기초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 삶 속에 숨겨진 가정들>은 “Worldview Matters”라는 단체를 시작하기 전인 1989년에 부모와 교사들, 그리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에 대하여 쉬운 일상의 언어로 집필한 것이다.

나는 부모들이 성경적 관점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바란다. 이 책은 지식의 습득으로 끝나지 않고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안목을 제공해 줄 것이다. 바라는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ditor's Comment



<진리와 하나님 교육>, 크리스천 오바만, 예영커뮤니케이션 이 책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모든 교육의 요소를 통합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마다 세상은 변하여 바른 방향으로 갔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맞닥뜨린 도전이기도 하다. 이에 이 책에서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교육할 수 있게 지침과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이 :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교통합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테면 학생들이 배우는 경제학 주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큰 그림” 안에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수학 문제를 풀거나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각 주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보고서 작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쓰기 능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학습 주제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를 깨닫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 : 성경적 세계관을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성경의 가치에 따라 살아간 사람들의 성공적인 삶을 참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팡퐁박사 조지 워싱턴 카버와 레이저 프린터를 발명한 게리 스타크웨더(Gary Starkweather)가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나는 게리가 새로운 발명품을 만드는 비디오편 본 적이 있다. 게리는 발명품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애썼고,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결하고자 했다.



나는 부모들이 성경적 관점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바란다. 이 책은 지식의 습득으로 끝나지 않고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안목을 제공해 줄 것이다. 바라는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현재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서로 다른 지역 6~8개의 학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와 가나, 남아메리카의 기아나(Guiana), 미국의 일부 기독교 학교 등과 함께 기독교 세계관 통합수업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려고 한다. 각 나라를 개별적으로 여행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모델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본 프로젝트는 성경적 세계관과 일에 관한 신학적 기초를 다지는 작업으로 먼저 <우리 일상에 숨겨진 가정들>과 대로우 밀러(Darrow Miller)의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게 될 것이다. 대로우 밀러와는 지난 6월에 멕시코에서 만나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강의도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라이프워크>(예수전도단 역, 지난 2012년 4월 <월드뷰>에서 소개)를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대로우 밀러(Darrow Miller)의 책은 일터에서 실제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적용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대로우 밀러의 <라이프워크>와 <일상에 숨겨진 가정들>을 함께 읽고, 성경적 원리들을 교육과정에 적용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수학, 역사, 과학 수업을 “일에 관한 신학”(Theology of work)과 연결하고 성경적 진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찾아보게 될 것이다. 본 프로젝트는 6~10개의 학교가 참여할 예정이며 약 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학교는 각자의 실정에 맞는 “일의 신학”과 “성경적 세계관”을 통합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것이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상황에 맞는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게 된다. 내가 죽은 후에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특정 학교를 잘 훈련하면, 그들이 다른 학교 교사들을 잘 훈련시킬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각 나라에 “Worldview Matters” 연구학교가 세워지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게 된다. 내가 죽은 후에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특정 학교를 잘 훈련하면, 그들이 다른 학교 교사들을 잘 훈련시킬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각 나라에 “Worldview Matters” 연구학교가 세워지기를 기대한다.



**이 :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사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교육가들의 가장 큰 도전은 성숙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고가 아닐까 생각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뛰어넘어야 할 가장 큰 장벽이다.

루터의 시대로 돌아가보자. 당시에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믿음 안에서 소를 키우며 우유를 짜는 일도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여겼다. 1600년대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였던 조지 스윈록(George Swinock)은 “목사가 교회를 섬기는 것과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 일 모두 거룩한 일이다.”라고 했다.

그동안 우리는 분리된 세상에서 살아왔다. 교회 출석, 성경 읽기, 기도 등은 영적인 일로 여기고, 세상이라고 부르는 일들은 하찮은 일, 즉 영적이지 못한 일로 여기는 이원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세상은 어디인가?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며, 모든 것을 구속하신다면, 세속적인 세상은 어디인가? 나는 세속적인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세속적인 세상은 단지 인간의 상상속에 존재하는 허구일 뿐이다.

나의 친구인 대로우 밀러는 미국 교회에 만연한 이러한 현상을 “복음의 영지주의”(Evangelical Gnosticism)라고 부른다. 집을 수리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돌보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을 때 주께 하듯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오늘날 교육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객관적 사실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하면 끝이라는 생각이다. 가장 큰 압박은 단순히 내용만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내용 이면에 담긴 가치들을 가르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한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우리가 넘어야 할 두 가지 장벽이 있다. 내용을 다 가르쳐야 하는 부담과 성경적 가치를 전달해야 하는 거룩한 부담이다.



**이 : 마지막으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재 직면한 문제를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겪고 있다. 외판 섬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 바란다. 지쳐 있다면,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잠시 뒤로 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이 세상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실 것이다.



**크리스천 오버만**

성경적 세계관 연구소의 연구 및 제품개발 이사이며 World View Matters Inc.의 전무이사이다. 그는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공립학교에서도 가르쳤으며, 14년간 교장으로 재임한 후, 북 시애틀 기독교 학교 학원장을 역임했다. 시애틀 퍼시픽대학(Seattle Pacific University)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퍼시픽 루터대학(Pacific Lutheran University)에서 행정가 자격증을 수여받았다. 시애틀 퍼시픽대학 평생교육과정 외래교수로 재임하고 있으며, 캐시(Kathy) 여사와 함께 학교, 교회, 교도소 및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성경적 세계관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1979년 이래로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였고, 다른 기독교 학교를 돕는 일과 워싱턴의 푸알럼, 타코마, 스펠어 웨이에 있는 몇몇 지역 학교들을 통합하여 현재 약 2,000명의 학생이 재학하는 초교파 기독교 학교를 만드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기독교학교 국제연맹(ACSI)**

1978년 설립된 ACSI는 기독교 학교 국제연맹(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의 약자로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본부를 두고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독교 학교 운동을 펼치고 있는 복음주의적 기독교 교육 기관입니다. ACSI는 기독교 교육자들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기독교 학교를 위한 기능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학교의 교사와 행정가들을 위한 인증프로그램, 학교교육과정 인증프로그램, 교재 및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촉진하고 기독교 학교 및 기독교사들을 위한 훈련과 자원을 제공하는 국제기관으로, 효과적인 가르침과 배움으로 공익에 기여할 뿐 아니라, 성경적으로 온전하고 학문적으로 탁월하며, 사회에 참여하고 문화적으로 건전한 학교를 세우며, 성경적 세계관을 구현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가르침과 제자화를 실천하고 자신의 성장과 전문성을 함양하는 교육자 양성을 비전으로 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acsikorea.or.kr>

주소 (442-819)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경수대로 604번길 18 메르디앙빌딩 601호

Tel 070-4488-2500-1 Fax 031-217-2501 Email [acsikorea@acsi.or.kr](mailto:acsikorea@acsi.or.kr)

## 제2회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학분과 학술타운** **기독교교사의 세상바로보기**

이제, 우리 기독교 지식인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절박한 시대적 요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그러진 것들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들이 (기독교 교사의 세상 바로보기)의 협동적 집필 과정을 통해 작은 결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실이 다시 작은 씨앗이 되고 거름이 되어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책임 있는 제자’들로 키워나가는 출발점이 되고자 작은 학술타운을 준비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현장에서의 세계관 통합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계시는 교육 동지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2014. 5. 10(토) 9:30-13:00

**장소** **총신대학교(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제2종합관 지하 1층 카펠라홀**

**주최** **기독교학문학회 교육학분과, DCTY**

\* **등록 안내** | 등록 및 접수 9:30- 10:00

\* **참가비** | 1. 사전등록(5월 2일까지 입금), 2. 등록비: 10,000원

**사전등록자 선착순 50명에 한해 <그리스도인의 세상 바로보기> (5권/1세트, 정가 55,000원)을 무료증정**

\* **예금구좌** | 농협 351-0698-4736-93 (박영주)

\* **문의처** | 기독교학문연구회(02-3272-4967, 교육학분과장 박영주 (joycep728@gmail.com))

\* 주차장은 등록처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통역회 **WORLDVIEW**  
[www.worldview.or.kr](http://www.worldview.or.kr) T. 02.754.8004